

# '한국 문학의 거목' 이청준, 평전으로 만나다

한국 문학사의 거목을 꼽으라면 단연 미백(未白) 이청준(1939~2008년)을 빼놓을 수 없다. 문학을 공부하거나 소설 창작을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 이청준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없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청준은 '당신들의 천국'을 비롯해 '서편제',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백', '매잡이', '선학동 나그네'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장흥이 낳은 한국문학의 거목 이청준. 최근 이청준 작고 15년 만에 평전이 발간돼 문학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문학평론가 이윤옥이 펴낸 '이청준 평전' (문학과 지성사)은 이청준의 삶과 문학을 글로 담아낸 것이다. 이 평론가는 이번 평전을 집필하기 위해 미백의 육필 초고를 비롯해 메모, 일기와 편지, 최초 발표본 등을 꼼꼼히 읽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지극히 평범한 내가 우리 소설사에 우뚝 선 크고 높은 산 이청준이 걸어간 길을 되짚으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나는 그와 인연을 맺었고 약속을 했다"며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나는 힘이 닿는 데까지 성실하게 그의 삶을 복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청준이 세상을 뜨기 3, 4개월 전 '평전을 쓰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돌아온 답이 의미심장하다.

평론가 이윤옥 '이청준 평전' 펴내 육필초고·일기·최초발표본 등 분석 작고 15년만에 '삶·문학 복원'

표지화 담은 '행복한 동행'도 눈길

"평전은 쓰는 사람과 대상이 겨루는 상상력의 싸움이다. 대상이 소설가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소설가는 작품으로 교묘히 자기합리화를 시도했을 테니까. 어떤 경우라도 쓰는 사람의 상상력이 대상의 상상력을 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평전은 실패하고 만다."

이어서 이청준은 이렇게 덧붙인다. "부디 내 상상력이 내 상상력을 이겨서 내가 꾀한 모든 자기합리화를 벗겨 내 맨얼굴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이번 평전은 작가의 고향인 '장흥',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광주', 대학 입학과 창작활동을 펼쳤던 '서울과 용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흥 대덕면 진목리(현 회진면 진목리)에서 태어난 이청준은 광주서중,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다. 대학 재학 중에 단편 '퇴원'으로 사상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단편 '병신과 머저리'로 제12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다. '매

잡이'로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신인상, 중편 '이어드'로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중편 '비밀학교'로 대한민국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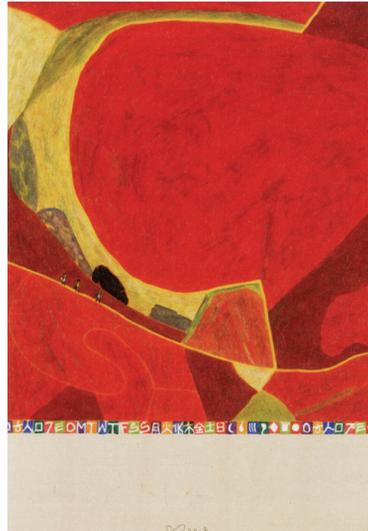
책에는 가족사로부터 시작해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던 유년, 서울대 재학시절과 이후 '사상계'에 취직하고 작가로서 창작활동을 펼쳐나간 시기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이청준의 동년배 문인들 흔히 '4·19 세대'라 칭하는 김승옥, 김현 등과의 인연 그리고 역사적 격변기였던 4·19와 5·16이 준 충격과 역사적 지평 등도 다루고 있다.

이밖에 평전에는 일화들도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저자는 이청준이 무엇보다 결백에 가까울 만큼 자신에 대해 엄격했다고 한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었기에 이청준은 그만의 독특한 소설세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 평론가는 "물론 나는 이청준이 자서전을 썼다면 내가 쓴 평전보다 더 자신에게 엄격했으리라 믿는다. 그는 평소 자기 잘못에 대해 다소 지나칠 만큼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며 소회를 밝힌다.

한편 지난 2017년 이청준 전집 완간 기념 표지화 전시회 일환으로 발간된 '행복한 동행' (문학과지성사)에는 김병익, 김선두 등의 글을 비롯해 이청준 전집 발간 개요, 전집 소개에 관한 글이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김병익의 문학평론가(이청준기념사업회 초대회장)는 '이청준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라



2017년 이청준 전집 완간 기념 표지화 전시회 일환으로 발간된 '행복한 동행'에 수록된 김선두 작 '서편제' (왼쪽)와 '선학동 나그네'.



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미백을 회고한다. "질문하고 천착하며 인식하고 발견하는 진지하고 반성하는 작업을 통해 그는 진실과 사실을 분간하며 의미와 의의를 발견하고 품위와 격조를 존중

하며 마침내 가장 근원적인 사랑과 화합을 당부하고 구원과 영원으로 초월하는 고답적인 정신의 소요를 보여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남양주서 펼쳐지는 '상상 어린이 극장'

ACC재단, 영유아 공연 영상회... '거인 양갈로' 등 4편

필리핀 민담과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결합한 음악극 '거인 양갈로'와 인도 설화를 소재로 한 연극 '하티와 광대들' 등이 경기 남양주에서 영상으로 상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남양주시와 함께 오는 12일까지 영유아 공연 영상회 '상상 어린이 극장'을 운영한다.

'상상 어린이 극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ACC 어린이 공연 콘텐츠를 영상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남양주 정약용 도서관 공연장과 진접 오남행정복지센터 크나새홀, 어린이비전센터 강당 등에서 공연 영상 4편을 총 14회 상영한다.

상영작은 필리핀 민담과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결합한 음악극 '거인 양갈로'를 비롯해 인도 설화를

소재로 한 연극 '하티와 광대들'이다. 또한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악극 '나무의 아이', 중국 춘절을 배경으로 한국과 중국의 색채를 담아낸 연극 '괴물 연을 그리다' 등도 포함됐다.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영상회는 지난 2월 남양주시와 체결한 '어린이 공연 콘텐츠 교류 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영상회를 시작으로 ACC 공연 콘텐츠를 타 지역에도 유통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영회 관람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남양주시 티켓에매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괴물 연을 그리다'



전주판소리합창단.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 '희비애락' 국악이 좋다

국립남도국악원, 12일 토요일상설공연... 전주판소리합창단 초청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긍정적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 재담'은 삶의 애환과 익살을 모두 담아 낸다. 슬픔과 즐거움이 담긴 이야기들은 민중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 이하 국악원)은 2023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를 오는 12일(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주판소리합창단(대표 이효인)을 초청해 인생사 '희비애락(喜怒哀樂)'을 옛 소리에 담아낼 예정이다. 풍류재담 속에 녹아 있는 희비애락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계획. 2006년 창단 이래 '판소리 합창'이라는 장르를 개척해 온 전주판소리합창단의 소리는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춘향가 중 '신 방자 분부 듣고(구성방수미)'를 감상할 수 있다. 몽룡과 춘향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춘향을 데리러 가는 방자를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대목으로, 방수미가 예술감독을 이유빈과 김강욱이 반주를 맡는다.

남도 신민요 '신사철가(작곡 김하진)', 심청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인당수(印堂水)'를 비롯해 '예수의 가을밤(작·편곡 최석근, 이유빈)'과 '안부(작곡 유민희)' 등도 펼쳐진다.

이외에 웃감과 패물을 나열하는 경기 휘물이 잡가 '비단타령·화초장(작곡 함현상)', 흥취 있는 삶을 구가하는 '홍년가(작곡 조성운)', '광야(작곡 강성오)' 등도 준비돼 있다.

무료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악원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황윤 감독전' 생명의 목소리를 내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12일 광주독립영화관... '수라' 등 상영

생명에 대해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 온 황윤(사진) 감독의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황윤 감독전'을 오는 12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최한다. 4만 관객을 앞둔 다큐 '수라' 외에 '잡식 가족의 딜레마', '광장의 닭'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20여년간 생명과 환경에 천착해 작업해 오고 있는 황 감독은 지난 6월 21일 개봉한 '수라' 등에서 새만금 갯벌과 관련된 생태문제, 환경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먼저 식탁에 오르는 동물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2014)'를 만난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시기, 주인공 '윤'은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 없다는 의문을 갖는다. 돼지를 찾아 나서며 마주하는 딜레마를 영상에 담았다.

로드킬 문제를 지적하는 '어느 날 그 길에서(2006)'는 도로 갓길에 팽개쳐진 동물의 사체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작품이다.

이외에도 호랑이 '크레인'을 통해 동물원의 문



제를 고발하는 '작별(2001)', 단편 '광장의 닭' 등 황 감독의 대표작들도 만난다.

한편 상영회 이후에는 황 감독과 전 서울여성문화재단대표 로그래머이자 현 서울동물영화제프로그램 매니저인 조와 함께 자연, 환경, 인권 등을 논의하는 GV(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입장료 5000원(후원회원 무료). 예매는 디트릭스 홈페이지. 문의는 광주독립영화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